

5만 민중 윤석열 퇴진광장 열어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 “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투쟁 조직해야”

민주노총·금속노조 등 5만여 조합원이 윤석열 퇴진광장을 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은 ‘전태일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를 통해 퇴진광장을 열었다.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라는 구호를 걸고 노동자대회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에 분노한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여성, 청년학생이 모인 윤석열 퇴진 총궐기를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서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전격 펼쳤다.

노동자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직들은 각각 사전대회를 열고 행진을 통해 서대문 사거리에 집결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반노동 공세에 맞서 ‘노동탄압, 노동개악 저지’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 거부를 예고한 윤석열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



정을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대회사를 통해 “동지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힘을 믿고 투쟁하는 노동자를 이길 자 없다.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라며 “나라를 빼앗겼던 항일의 시기에 독재정권 시대에도 선봉에서 투쟁한 노동계급이 있었다”라고 격려했다.

윤택근 대행은 “동지들, 윤석열 퇴진광장을 노동자의 손으로 열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은 국민의 명령이며 정의를 살리는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이다”라고 당부했다.

건설노동자 양희동 열사 형 양희선 씨와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유족은 “열사의 투쟁은 정당했다. 절대로 고인의 뜻을 잊지 말고 계속 투쟁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 풍물패와 노래패가 공연하고, 민주노총과 제창과 상징의식으로 마무리했다.

곧이어 전국노동자대회, 범시민대회, 전국농민대회, 빈민대회, 전국장애인 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중이 모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대표단 100인은 퇴진운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대표단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우리는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주권자들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선언한다”고 일갈했다.

대표단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역사를 만든 노동자·농민·빈민·시민들이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라면서, 윤석열에게 퇴진하라고 명령했다.

선언문을 낭독한 민중은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다.